

힘 빠진 투·타... 힘겨운 5강



KIA, 주말 두산 3연전 싹쓸이 패... 시즌 전적 3승 12패
선발 양현종·이민우·임기영, 고비 못 넘기고 대량 실점
터커·나지완 빈타... 7위 롯데와 1.5 게임 차로 좁혀져

KIA 타이거즈가 두산베어스의 순위 싸움 '특급 도우미'가 됐다.

KIA가 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1-7로 지면서 스윕을 당했다.

주중 키움을 상대로 싹쓸이 3연승을 기록했던 KIA는 '5강 라이벌'인 두산에 3승을 헌납하면서 2경기 차 6위로 밀어졌다.

허술한 마운드와 힘 빠진 클린업 트리오, 묘수를 찾지 못한 벤치가 3연패를 불렀다.

2일 경기에서는 양현종이 패전투수가 됐다. 3-2의 리드에서 6회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동점을 허용한 뒤 무사 만루에서 강판됐다.

볼펜의 난조로 양현종의 책임 주자가 모두 홈에 들어오면서 양현종은 5이닝 6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3일에는 1회부터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앞선 롯데전에 0.2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던 이민우가 두산전에서도 1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선두타자 허경민에게 우전안타를 내준 이민우가 페르난데스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다. 최주환과도 10구 승부 끝에 볼넷을 내주면서 경기 시작과 함께 무사 만루가 됐다.

이민우가 4번 김재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첫 아웃카운트는 만들었지만, 오재일의 우전안타로 2실점을 했다. 이어 박건우의 희생플라이로 세 번째 점수를 내줬다.

1회에 46개의 공을 던진 이민우는 2회 좌완 김기훈에게 마운드를 내줬다.

이날 3번 터커와 5번 나지완이 나란히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는 등 KIA의 클린업 트리오는 1안타 합작에 그쳤지만, 두산의 클린업 트리오는 모두 멀티

히트를 장식하면서 6타점을 합작했다.

4일 흐름도 비슷했다.

선발 임기영이 허경민의 몸에 맞는 볼로 경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최주환, 박세혁에게 2루타를 맞는 등 1회 3실점을 했다. 2회도 볼넷으로 시작해 페르난데스에게 적시타를 맞았다.

이후 임기영이 3회를 연속 삼진으로 시작했고, 4회는 삼자범퇴로 막았지만, 타선이 응답하지 않았다.

터커와 나지완의 부진 속 최형우 홈루 분투했다. 최형우는 3일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날렸지만, 볼펜의 볼소를 지켜야 했다. 4일에는 추격의 솔로포를 터트렸지만 이게 팀의 유일한 점수가 됐다.

앞선 두 경기에서 침묵했던 터커가 4일에도 세 타석에서 범로 물러났다.

1회, 5회 타석에서는 눈앞에 주자들이 있었지만, 헛스윙 삼진과 중견수 플라이. 8회 4번째 타석에서 모처럼 안타는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3일 빈손으로 돌아섰던 나지완이 4일에도 소득 없이 물러났다. 특히 6회 2사 2-3루에서 삼진을 더 하면서 KIA가 파워 싸움에서 밀렸다.

지난 1일 선발 데뷔전에 나선 김현수의 '깜짝 활약'으로 키움전 스윕은 이뤄졌지만,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KIA는 두산전 출전을 이어가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올 시즌 두산과의 상대전적은 3승 12패가 됐다. 5위 두산은 두 경기 차로 밀어졌고, 7위 롯데는 1.5경기 차로 가까워 졌다.

갈 길 바쁜 KIA는 두산 '가을잔치'를 위한 특급 조연을 자초하면서 남은 시즌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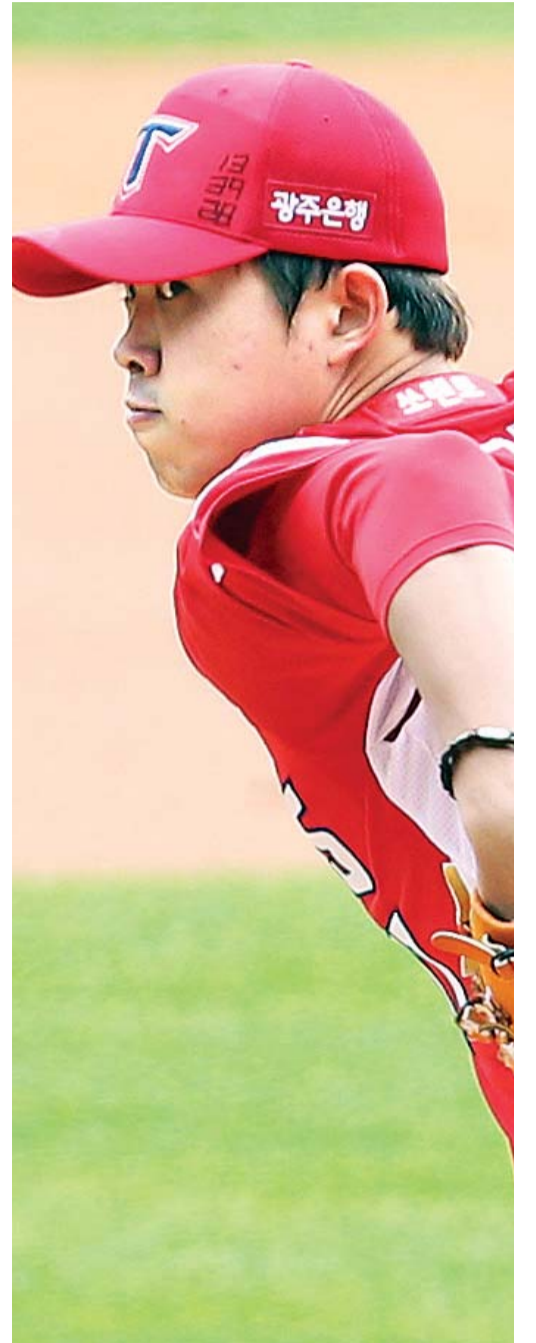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이민우



임기영

아쉬운 가을

토론토·STL, 와일드 카드 패배
류현진·김광현, 플레이오프 종료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이어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2020시즌이 아쉬움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김광현의 '가을야구'가 지난 3일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막을 내렸다.

세인트루이스는 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NLWC·3전 2승제) 3차전에서 0-4로 패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로써 1승 뒤 2연패를 당하고 디비전시리즈행 티켓을 샌디에이고에 넘겨줬다.

세인트루이스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시즌 초반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그 탓에 11차례 더블헤더를 포함해 46일간 53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소화해야 했지만 이를 이겨내고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가을야구 첫 관문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류현진은 이에 앞서 1일 탬파베이 레이스를 상대로 치른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시리즈(ALWC) 2차전에서 선발 등판해 1.2이닝 동안 홈런 2방 등 안타 8개를 맞고 7실점(3자책점)하고 무너졌다.

믿었던 베테랑 에이스 류현진이 일찌감치 강판한 탓에 구심점을 잃은 토론토는 2-8로 패했다.

전날 1-3으로 진 토론토는 이로써 시리즈 전적 2패로 4년 만의 가을 잔치를 단 두 경기 만에 마치고 내년을 기약했다.

팀의 명운이 걸린 경기에서 류현진이 안타깝게도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 류현진이 2회도 못 채우고 강판한 건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이래 정규리그를 통틀어서 이번이 4번째다.

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던 2018년, 밀워키 브루어스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에서 남긴 3이닝 5실점을 뛰어넘어 포스트시즌 최소 이닝, 최다 실점 기록을 다시 썼다.

4년간 8000만달러를 받고 토론토로 이적한 첫해, 류현진은 당당한 팀의 1선발로서 마운드를 이끌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팀당 60경기만 치른 정규리그에서 12경기에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의 양호한 성적을 남겼다. 우여곡절 끝에 한 시즌을 끝낸 류현진은 지난 2일 귀국했다.

/연남뉴스

파이널A 대구에 0-1 패
펠리페·윌리안 경고누적에 결장
엄원상, 상대 견제에 발 묶여
박진섭 감독 "우리 것 보여주겠다"



광주FC의 전용구장 첫승 목표는 이번에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는 적장들을 긴장시키는 경기력으로 파이널A 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광주는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 2020 K리그1 24라운드 경기에서 0-1로 졌다.

팬들에게 '전용구장 첫승'을 추석 선물로 안겨주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나섰지만 변수가 많았다.

앞선 포항원정에서 공·수의 핵심인 펠리페와 홍준호가 나란히 퇴장당해 이번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다. 뜨거운 경기 감각을 과시하던 윌리안도 경고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됐다.

엄원상을 중심으로 김정환, 김주공을 내세워 스피드로 승부했지만, 대구의 벽을 뚫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특히 견제 1순위 엄원상은 상대에 발이 묶였다. 또 정준연이 그림자 수비로 대구의 핵심 세징야를 봉쇄했지만 몇 차례 좋은 슈팅을 보여줬던 류재문의 발을 막지 못했다.

후반 23분 나온 류재문의 골로 승리를 거둔 대구는 ACL(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차지했다.

아쉬운 패배였지만 광주는 파이널A 팀이 견제하는 '복병'이 됐다.

경기가 끝난 뒤 '승장' 이병근 감독 대행은 "광주의 주요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해 속으로 안도했었다"라고 웃으며 솔직한 속내를 보여줬다.

앞선 두 경기에서 두 팀은 무려 16골을 합작했다. 첫 경기는 4-2 대구의 승리, 두 번째 대결에서는 광주가 6-4 승리로 설욕했다.

세 번째 대결에서 대구는 승리를 위해 조심스럽게 전략을 짜다.

이 대행은 "광주가 포항전에 져지만 단점이 잘되고,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그런 면에서 더 조심했다. 빠른 선수 엄원상, 김주공에게 공간을 안 주려고 협력 수비를 하면서 저지하려고 했다"며

광주 FC, 간절한 전용구장 첫 승



광주FC의 박정수(왼쪽)가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K리그1 24라운드 경기에서 공중볼을 다루고 있다. <광주FC 제공>

"준비가 잘 되어있는 팀이다. 광주의 장점을 생각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연구하고 선수들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진 광주도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가면서 이 경기의 첫 번째 슈팅은 전반 19분이 돼서야 기록됐다.

어려운 승부 끝에 안도의 한숨을 쉬 대구. 앞선 포항전에서는 사령탑이 경기 도중 세리머니까지 했다.

광주는 두 골을 먼저 넣은 포항을 상대로 펠리페, 윌리안, 엄원상의 골로 역전극을 연출했다. 하지만 일투철크의 동점골에 이어 광주가 연달아 퇴

장 카드 두 장을 받으면서 경기는 5-3 포항의 승리로 끝났다.

연속 3실점으로 진땀을 흘렸던 포항 박기동 감독은 광주의 퇴장 호재로 다시 승기를 잡자, 사령탑의 체면을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썩이는 세리머니를 했다.

상대에게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결과는 아쉽다. 광주 박진섭 감독은 "외국인 선수들의 경고누적과 퇴장, 부상 선수들로 변화가 많았다. 홈경기라서 꼭 이기고 싶었는데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새로운 선수들이 처음 호흡 맞췄다. 세징야라는 좋은 선수도 있고 수비에 신경 많이 썼다. 펠리페, 윌리

안이 없다 보니 확실하게 공격에서 무개감이 떨어졌다. 피지컬,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ACL 진출권이라는 '동기부여'가 사라졌지만, 전용구장 첫승이라는 목표와 파이널A 자부심이 남아있다.

박 감독은 "홈경기 첫 승이라는 동기부여가 있고, 전북, 울산 원정이 남아있다"며 "강팀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